

# “아시안게임 금메달+파리올림픽 출전권 따겠다”



한국 근대5종 대표팀 전용태가 지난해 8월1일(한국시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2022 세계선수권대회 혼성계주에서 1위로 골인하고 있다. AP/뉴시스

## ‘광주시청 근대5종’ 전용태 새해 각오

지난해 세계선수권 2관왕 쾌거  
9월 아시안게임 조준... 몸 만드는 중  
내달 5일 이집트 월드컵 1차 출격

“올해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꼭 획득할 거예요.”

‘한국 근대5종의 간판’ 전용태(28·광주시청)가 한국 근대5종 새 역사 작성을 위해 다시 신발끈을 묶었다.

전용태는 14일 전남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는 좋았던 일이 많았지만 아쉬운 일도 겪는 등 많은 경험을 한 해였다”며 “올해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과 내년 파리올림픽 티켓 확보를 목표로 기량을 더욱 가다듬어 좋은 경기력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용태는 지난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최고의 한해를 보냈다. 2021년 도쿄 올림픽 근대5종 남자 개인전 동메달의 기세를 이어 지난해에도 ‘한국 근대5종의 간판’다운 활약을 펼치며 각종 국제대회를 휩쓸었다.

전용태는 지난해 5월 시즌 첫 출전 국제대회인 2022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 3차 대회에서 개인전 역대 최고점 기록(1537점)으로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6월 월드컵 왕중왕을 가리는 파이널 대회에서도 금메달로 장식했다.

지난해 7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선 2관왕을 차지하며 세계 최강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전용태는 정진화와 호흡을 맞춘 남자계주에서 금메달을 수확했고, 김선우와 짝을 이룬 혼성계주에서도 금메달을 합작해 한국의 혼성 계주 종목 사상 첫 2연패를 달성했다.

하지만 세계선수권 개인전 메달 획득 실패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그는 개인전 결승에서 17위를 기록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은 전용태는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올해 개인전과 단체전을 모두 금메달로 장식해 한국 근대5종 사상 최초의 ‘아시안게임 2연패와 2관왕 달성’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전용태는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근대5종 남자 개인전서 총 1472점을 기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단체전이 신설된다. 단체전은 한 국가당 출전선수 3명의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세계랭킹 30위권 내 선수 가운데 아시아권 선수는 3명이다. 전용태(4위), 서창완(26·전남도청·7위), 정진화(34·LH·14위) 등 모두 한국 선수다. 나머지는 대부분 유럽 선수들이다. 아시아 근대5종에서는 한국 선수들의 기량이 최고인 셈이다.

전용태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2연패와 2관왕 동시 달성’을 목표로 삼은 이유다.

전용태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선 단체전도 생겨 2관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체전 메달은 출전 선수들의 컨디션과 팀워크가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근대5종 선수들은 훈련 여건상 오래전부터 함께 훈련하면서 호흡을 맞춰 왔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다면 금메달 획득 가능성이 크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전용태는 또 2024 파리올림픽 출전권 획득도 목표로 삼고 있다. 올림픽 티켓을 따기 위해서는 7월 세계선수권서 메달을 획득하거나 월드컵 파이널에서 금메달을 따내야 한다.

전용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12

월 중순부터 훈련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7~21일 프랑스 파리 전지훈련을 통해 유럽 8개국 팀들과 모의 시합을 하면서 적응훈련을 진행했다.

새해 1월 9~22일에는 해남 우슬종합운동장에서 근력과 근지구력 강화를 위한 체력 단련과 펜싱, 수영, 육상, 레이저런 등 실전 훈련을 병행하며 지난 시즌의 기량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이후 국가대표팀 훈련장인 문경 국군체육부대에 입촌해 오는 3월 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월드컵 1차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월드컵 1차 대회에는 전용태를 비롯해 서창완, 김승진(인천), 박우진(인천) 등이 출전한다.

전용태는 “아직 나의 전성기가 오지 않았고 세계무대에서 더 보여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 올해가 기대된다. 동계 훈련기간 기술종목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첫 시합인 월드컵 1차 대회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이어 “올해도 각종 월드컵과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소식으로 광주시민들의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 장애인고용공단 휠체어 배드민턴팀 ‘전남 연고지’ 확정

최근 연고지 공모 결과 최고점수를 장애인체전 개최지 위상 제고

창단 추진 중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 휠체어 배드민턴실업팀의 전남 유치기 최종 확정됐다.

14일 전남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 휠체어 배드민턴실업팀 연고지 선정 공모에서 전남도가 최종 연고지로 선정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의 무제도 준수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휠체어 배드민턴팀을 창단하기로 하고 각 시·도에 연고지를 공모했다.

이번 연고지 공모에는 전남도, 경기도, 광주시 등 3개 시·도가 신청했다. 전남도는 연고지 유치 타당성과 필요성, 지원내용 적절성 등 5개 분야 평가 결과 86.8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아 연고지로 최종 선정됐다.

최동환 기자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전남이 2023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로 연고지 이전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장애인체육 및 관계기관의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한 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휠체어배드민턴실업팀 연고지 유치로 전남도는 침체돼 있는 지역 장애인 배드민턴 활성화와 올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 5위 목표 달성을 꾀할 수 있게 됐다.

또 전남 전지훈련 등을 통해 지역 장애인 배드민턴 선수들의 실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향후 공단에서 배드민턴 우수 선수를 공개모집(감독 1, 코치 1, 선수 4) 후 실업팀을 창단하면 3월 중 공단과 연고지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레이업 샷 휴스턴 로케츠의 잘렌 그린(가운데)이 14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웰스 파고 센터에서 열린 2022~2023 미국프로농구(NBA)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의 경기에서 필라델피아의 잘렌 맥다니엘스(왼쪽)와 조엘 엠비드 사이를 뚫고 레이업 샷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필라델피아가 휴스턴을 123-104로 이겼다. AP/뉴시스

## 광주FC ‘하드워커’ 미드필더 이강현 영입

활동량·투지·중거리슛 강점 센터백 소화 가능 멀티 자원

올시즌 프로축구 K리그1으로 복귀하는 광주FC가 ‘하드워커’ 미드필더 이강현(24·사진)을 영입, 중원을 보강했다.

광주FC는 14일 인천유나이티드에서 맹활약한 미드필더 이강현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181cm·77kg의 탄탄한 피지컬을 지닌 이강현은 볼 배급과 능숙한 패스, 빌드업이 강점인 중앙 미드필더다. 그는 왕성한 활동량과 함께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하드워커’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광주 호남대를 거쳐 2020년 K3리그 부



산교통공사 축구단에 입단한 이강현은 성실하고 헌신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며 주전 자리를 꿰차는 등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2021시즌 인천에서 프로 데뷔에 성공, 중앙과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백을 오가며 맹활약을 펼쳤다.

특히 지난 시즌 막판 2경기 연속골로 팀의 창단 첫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진출에 혁혁한 공을 세우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강현의 K리그 통산 성적은 38경기 2골 1도움이다.

최동환 기자

## 광주시청 탁구팀 6명 참가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이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태극마크를 향해 달린다.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은 14~18일 경기도 이천선수촌 탁구장에서 열리는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탁구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한다.

대한장애인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선발전에 남기원, 박진철, 김경길, 김영건, 서수연, 김성욱 등 광주시청 소속 장애인탁구 선수 6명 전원이 출전한다.

이들은 2020 도쿄패럴림픽에 이어 전 원 국가대표 발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선발전은 국제탁구연맹(ITTF) 경기 규정 및 대한장애인탁구협회 운영규정에 의해 1차와 2차로 진행된다. 1차 선발전에서 체급별 4명으로 압축한 뒤 2차 선발전은 풀리그를 통해 순위를 결정한다.

최종 선발은 대한장애인탁구협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25~26명 안팎의 인원이 선발될 예정이다.

조재관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 감독은

“동계훈련기간 광주시와 광주시장애인체육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선수 각자 부족했던 점을 보완했다”며 “올해 첫 시합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대회이기도 한 이번 선발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선수 전원이 국가대표에 발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돼 올해 10월 22~28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총 44개국 22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최동환 기자

## “항저우 꼭 잡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탁구 국대 선발전